

서양사 연구 한평생의 학문적 집대성

정년 맞으며 「서양 근대사상사 연구」 등 4권의 저서 펴낸 차하순교수

우리 사학계에 처음으로 '사상사'를 도입하고 이의 소개에 힘써왔던 서양학계의 중진 서강대 차하순(65) 교수가 지난 8월로 정년퇴임을 맞았다. 그는 정년퇴임을 하면서 2년여 전부터 준비해 왔던 4권의 저서를 동시에 펴내 후학들에 의해 "스스로에게 몹시 엄격하고, 성실하고 깐깐하기로 정평난" 학자로서 면모를 강단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잃지 않았다.

그의 저술의 상당부분을 출간해 냈던 탐구당(사장 홍석우)에서 또다시 묶은 네 권은 「서양 근대사상사 연구」 「현대의 역사사상」 「벽돌이 하나씩 쌓일 때」 「글쎄, 어떨까요」들이다. 앞의 두 권은 그의 학자적 삶의 전부를 바쳤던 사상사, 그중에서도 근대사상사와 80년대 이후 그의 관심을 온통 사로잡았던 역사사상에 관한 이미 발표했거나 일부 미발표된 논문 모음이고, 뒤의 두 권은 60년대초부터 불과 최근까지 30수년 동안 학보나 일간지, 월간지, 학회지 등에 발표해 왔던 隨想이나 時評들을 분량껏 수렴해 담은 것이다.

지나간 글들을 빠짐없이 챙기되 수상·시평들은 옛날에 썼던 원문 그대로 두고, 논문들은 일일이 다시 읽고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묶은 두툼한 책꾸러미에는 35년간 깊이 정들었던 대학과 연구실을 떠나는 노학자의 아쉬움이 애잔히 묻어난다. "퇴임식을 한 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사람들 만나 인사하느라 바빠 실감나지도 않는다"는 그지만 퇴임후에도 계속 하는 '사학개론' 강의후에는 가야 할 연구실이 없는 영락없는 떠돌이 시간강사 신세여서 정년퇴임의 실감을 그럴때 비로소 느끼게 된다며 웃는다.

정통으로 서양사학을 배운 1세대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정통' 서양사학을 공부한 학자라고 후학들은 꼽는다. 이전의 1, 2세대 서양사학자 대개가 일본에서 공부한 것과 달리 그는 당시 미국 서양사상사의 '메카'로 꼽혔던 브랜디이스대학에서 정통으로 공부한 첫번째 한국학자였다는 것이 주변의 평이다. 이번에 함께 묶은 「서양근대사상사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이제 40년이 넘는 사상사에 대한 그의 학문적 업적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인간 내면의 다양한 모습들과 각각의 정신적 상이성이야말로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진정한 이유"라는 그는 "인간의 생각, 믿음, 느낌의 역사로 정의되는 '사상사'는 정

비사학도들이 학자 차하순을 기억하는 것은 7, 80년대 신문·잡지와 같은 언론매체를 통해 '대사회적 발언'을 씩없이 해온 그의 時評을 통해서일 것 같다. 서구적 민주주의에 입각해 강도높은 비판을 해왔던 그는 80년대 민중·민주주의의 논지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긴 하지만 7, 80년대 가장 활발했던 비판적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차하순 교수.

치와 경제의 역사, 전쟁과 평화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역사연구 장르"임을 새삼 강조한다. 이 책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형평 이론'은 차 교수의 돌출한 학문적 업적으로 손꼽히는 부분. 평등이나 공평과 다른 개념으로 세간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 용어의 개념정립은 물론 현대민주주의의 제대로 이해하는 근거를 그는 여기에서 찾고 다양한 예들을 설명한다.

"자유와 평등은 항상 모순적이지요. 자유가 강조되면 구성원의 평등이 무너지게 되고, 평등을 강조하면 개인의 자유가 억제되지요. '형평의 연구'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모순된, 그러나 버릴 수 없는 두 개의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때 이상적 사회가 되는지를 모색한 거지요.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자유와 평등 간의 변증법적 조화가 형평이라고나 할까요?"

형평은 다시말해 "사람을 예로 든다면, 그가 처해있는 조건이나 관계, 직능, 위치, 필요성 등에 따라 그에 주어지는 자유와 평등이 적당하게 조정될 수 있음"을 말하는 용어다. 이 형평이론으로 박사학위논문(「17세기 정치이론에 있어서 형평의 관념(1969년)」)도 쓰고, 그것으로 제31회 학술원상까지 받는 학자적 영광까지 누리지만, 극단으로 몰아붙여 해석될 경우 "사람들 각각은 불평등한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낼 수 있는 이 '형평이

칙'이 사회에서 이해받고 널리 통용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요즘에 와서야 정치·경제 부문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하지만 정확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불만이라면 불만이다.

특히나 80년대 말시즘이 노도처럼 기승을 부리던 시대에는 조야한 평등주의에 밀려 형평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고, 그것이 물려간 90년대에는 또다시 고전적 자유주의가 제시절을 만난 듯 다시 득세하는 이 시점에서, 그 개념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던 레디컬한 후학들에 의해 이제서야 비로소 "형평의 의미는 몹시 클 수 있다"거나 "선생의 형평이론은 사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은 비록 뒤늦은 평가이긴하지만 40년간 학문연구에만 몰두했던 그를 몹시 기쁘게 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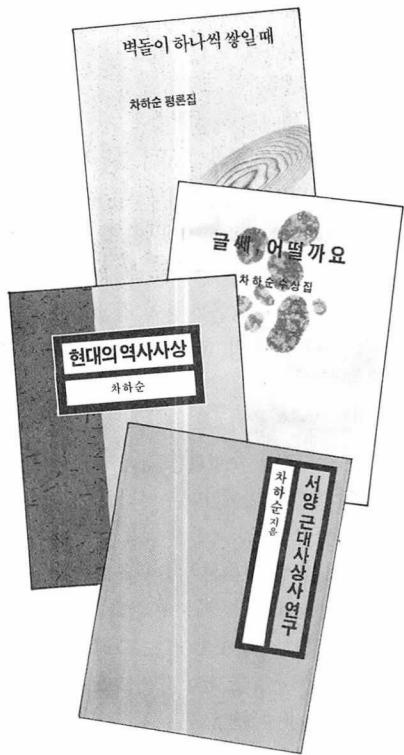
부르크하르트의 역사관 좋아해

그의 학문적 편력은 당시의 관심사에 따라 사상사 안에서도 여러 주제를 거친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으로부터 출발하여 17, 8세기 자유주의 평등사상으로 옮겨갔다가 하면, 60년대말 미국유학 시절에는 '정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정치·사회사상사로 빠져들었다가, 80년대로 오면서는 역사사상쪽으로 또 다시 관심을 옮긴다. 시작은 르네상스 휴머니즘이지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느끼

는 부문은 그의 학자인생 후반기에 몰두했던 '정치·사회사상과 역사사상' 쪽이라고 차교수는 밝힌다. 수상·시평을 제외한 나머지 한권 「현대의 역사사상」은 사상사 가운데서도 그가 주력해온 바로 그 분야의 글들만을 따로 모은 것이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부르크하르트의 문화사학'이다. 부르크하르트는 차교수가 가장 좋아하는 역사학자로 그에 대한 비평적 서술인 그 글을 통해 차교수가 지향하는 사관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르크하르트의 문화사관은 현대에 와서 그 방법론에서 일부 비판받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발전의 요인을 정치, 경제, 문화 중 무엇으로 보는가에 '문화'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음으로써 19세기 중기 이후의 사관을 대표합니다. 그는 정치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한 랑케와는 달리 '권력'과 '종교' '문화'를 역사의 3대 형성력으로 간주하지요."

"본래 일어난 그대로의 과거를 재현할 수 있다"는 랑케의 사관이 아니라 "역사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며 또 예술품이어야 한다"는 부르크하르트에 경도된 것은 자연발생적인 듯하다. 그가 자신의 초기 연구가 르네상스 시기에 맞춰진 것도 "미술사예의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회고하는 것이나, 그 당시는 "화집을 들여다보면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는 추억들은 그 역시나 자연적으로 문화사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질적 특성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는데, 정년 이후의 계획 가운데 하나가 "세계문명의 현장들을 하나씩 둘러보는 것인데, 그런 여행의 기록을 「세계문화답사기」에 담아 청소년들에게 각 문명의 특징을 알려주는 책도 써볼 작정"이라는 데서도 나타난다.

사회적 발언하는 것 "학자의 임무"

비사학도들이 학자 차하순을 기억하는 것은 7, 80년대 신문·잡지와 같은 언론매체를 통해 '대사회적 발언'을 끊임없이 해온 그의 時評들을 통해서일것 같다. '정의'를 중심에 둔 서구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그의 강도높은 비판은 80년대 민중·민주주의의 논지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긴 하지만 7, 80년대, 특히 70년대의 그는 가장 활발했던 비판적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로 인하여 80년봄 모처로 끌려가는 수난을 당하기도 했는데, 같이 행동했던 동료교수들이 해직당해 강제로 학교를 떠나야만 했을 때는 오로지 서강대(외국인신부가 총장으로 있을 때였다)라는 울타리가 도움이 되어 해직의 위기를 모면하기도 한다.

"신문이나 잡지에 실은 당시의 글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10년, 20년도 더 전에 쓴 그 글 가운데는 아직도 비판의 유효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 많더군요. 이는 우리가 외양적인 발전은 있었는지 몰라도 사회의 구석구석은

구조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것이 많다는 얘가지요." 그때 썼던 수상·시평들을 두 권에 묶으면서 그가 한 말이다.

후학들에게 "엄격하고 간간하"기로 소문난 그가 90년대의 한국현실에 던지는 평점 역시나 그리 높지가 않다. 그러면서 최근 있었던 서양사학자로 몹시 섭섭한 점을 한가지 지적했다. "얼마전 신문에 나기도 했는데,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낸 지침을 보니 앞으로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 '해외문화사' 과목을 빼겠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무슨 시대역행적인 발상지인, 겉으로는 글로벌리즘이다 세계화다를 외치면서 정작 서양의 고급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기초인 서양사 과목을 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지요."

이렇듯 고급공무원 시험에서 과목을 빼버리게 되면 그 영향은 멀리 중·고에까지 미쳐 커리큘럼이 당연히 소홀히 되기 쉽고, 그러면 학생들은 서양의 문화와 문명, 세계사 전반을 이해하는 지식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계문명의 전체적인 조감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객관화된 안목은 '균형감'을 가진다는 데서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아시아사, 서양사, 세계사와 같은 우리밖의 세계를 두루 배우는 데서 생겨난다. 그는 이런 사실들을 접하면서 문득 "우리가 지적 자폐증에 빠져있지 않나" 우려가 든다고 말한다.

70년대 유신시절 '국적있는 교육'을 주창했던 분위기에서 서양사학이 침체를 겪은 바 있는데, 그 결과 외국 같으면 각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만 모여 '학회'를 만들 정도로 서양사학이 변성한 것과는 달리 우리의 연구자층은 그 수도 너무 적고 층도 너무나 얇다고 몹시 안타까워했다.

정년이라고 하기엔 그는 너무나 정정한 모습으로 열의를 내보였다. 서강대에서 학부 3, 4학년을 대상으로 '사학개론'을 강의하는 것 외에 서울대학교에서도 그동안 미뤘었던 강의를 맡아 '시간 강사' 생활을 시작했다. 정년 이후의 강의는 대학원생과 하는 전문적인 것보다 풍부한 경험을 두루 담아 얘기할 수 있는 학부생 대상의 '개론' 수업이 더 좋을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이미 개정판까지 나와 있는 「서양사총론」의 재개정판도 준비하고 있다. "역사지식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게 마련"이니까.

—정혜욱 기자

中國

12억 중국인을 감동시킨, 베이징 사람들의 꿈과 고뇌 그리고 사랑 이야기!

황청건 사람들

趙大年·陳建功 著 / 홍광훈 譯

전통과 현대화의
갈등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중국인의 이야기



정가: 6,000원(상·하 각권)

동아출판사
861-4818

당대 최고의 명의 진이탕.
아내 뱃 속에 있는 아이를 낳태시킨
테릴사위, 장취안
경극가수로 성공하지만 사생아를 낳게
되는 둘째딸 진지.
현대적 제약시설로 금단을
생산해내려는 야심가,
쉬바이센.
중국 자금성의 작은 골목,
황청건에서 금단제조의
비밀을 둘러싸고 이들이
펼치는 갈등과 암투,
그리고 개혁물결이
휘몰아치는 현대 베이징의
세대간 의식흐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황청건 사람들」—중국현대문학의
새로움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SF계 최고상 휴고상과 네블러상을 동시에 수상한 아이작 아시모프의 최고유작!

양자인간

너무나도 인간이 되고 싶었던 200살 로봇의 이야기

과연 인간 또는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던지는
가장 근원적이고
인간정체성에 관한
철학적 의문을
실존적인 화두—
인간 존재에 대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아출판사
861-4818

지은이 :
아이작 아시모프
(Isaac Asimov)
로버트 실버버그
(Robert Silverberg)
共著 / 박상준 譯
정가 : 6,000원